한승헌 변호사가 회고하는 '인간 DJ'

5공정권 망발 한방에…해학도 달인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0일, 국립현충원에서는 6일 고인의 묘비와 추모비가 제막됐다. 광주일보는 평소 고인과 각별한 동지애를 나눠온 한승헌 변호사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 DJ'의 면모를 소개한다.

1997년 한승헌 변호사 모친상에 조문 온 DJ.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당시,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하다가 조문을 하는 바람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1996년 봄 서울 교외 나들이를 즐기던 김대중 전대통령 내외와 한 변호사 내외.

빨간 셔츠 입고 조문 온 DJ

1997년 8월, 어머님이 94세를 일기로 소천하셨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많은 조문객이 다녀가셨다. 발인 전날 해가 진 뒤에 빨간 셔츠를 입은 조문객 한 분이 나타났다. 뜻밖에도 김대중 선생(이하 DJ)이었다. 나는 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조문을 받고 상주의 예로서 허리를 굽혔다.

그분은 변명을 하셨다. (그 때는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차림으로 와서 미안합니다. 실은 오늘 오후 남대문시장에서 물건 파는 퍼포먼스를 하느라고 이런 복장을 하고 나가서, '골라, 골라'를 외치다가 옷 갈아입을 틈도 없이 여기로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촌각이 아쉬운 그 때에 어려운 시간을 내어 조문해주신 것이 여간 감사하지가 않았다.

이유나 사정은 여하간에, 빨간 셔츠 바람(물론 위 저고리는 입으셨지만)의 조문은 동서에 예가 없지 않을까 싶었다. 그분이 서거하신 뒤, 한 추모 방송에서 빨간 셔츠에 챙 있는 모자를 쓰고 '골라, 골라'를 흥겹게 외치는 그분의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실 것이다.

'사대주의'논쟁 유머 한방으로

DJ는 해학도 달인 수준이었다. 1980년 봄, 소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된 DJ는 전두환 군부의 시나리오대로 사형이 확정되어 목숨이 그야말로 경각에 걸려 있었다. 그러다 미국의 반대와 세계 여론의 항의에 부딪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미국으로 추방성(?) 망명을 했다. 그러나 그는 1985년 12대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전두환정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귀국을 강행한다. 귀국 항공편에는 외국의 정치인·외교관·인권운동가·언론인 등이 동승해서 따라왔다. 경찰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DJ를 동교동 댁으로 강제 압송하고 연금해버렸다.

전두환 정권은 DJ의 귀국을 비난하는 가운데, 여러 외국인과 함께 온 것은 사대주의적 망발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한 디제이의 응수는 이러했다. "내가 외국 사람들을 따라다녔다면 몰라도, 외국인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사대주의자란 말인가?"

이희호 여사 기도에 '불만'

DJ는 1980년에 소위 '내란음모사건'으로 육군교도소에 구속되어 사형을 구형 받았다. 그 무렵 영부인 이희호 여사께서 접견을 올 때마다 내외분이 마주앉아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DJ는 그 기도내용이 불만이었다고 했다.

'하느님, 남편의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DJ는 훗날에도 가끔 그 때의 기도가 매우 섭섭했노라고 하면서 좌중을 웃겼다.

물론 이 여사의 참뜻이야 백 번이라도 '살려 주십시오'에 있었지만, 개신교(감리교) 장로인지라 성서적인 표현을 썼을 것이다. 죽음을 예감한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느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여사는 미국정부의 전·현직 고위관리를 비롯한 국내외 요인들을 상대로 기민하고 호소력 있는 구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여기에는 이 여사 자신의 지혜와 역량이 크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파의 카터 아닌 보수파의 레이건 후보가 승리하자 DJ의 구명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한때 절망하기도 했지만, 의외로 레이건이 전두환에게 강수를 쓰는 바람에 디제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보청기에 얽힌 '보은'

나는 언제부터인가 청력이 저하되어 남모르게 불편을 느껴왔다. 만일의 실수가 두려워서 생방송은 피하게 되었다. 방송사측에 생방송은 못한다고 고사를 할 때면, "난 절반 밖에 안 들려서, 무슨 값을 치를 때도 만원 내라면 오천원만 내기도 한다."고 엄살을 부리기도 한다.

한번은 '동교동'의 응접실에서 DJ와 환담하던 중, 내가 청력 저하의 고충을 말씀드렸더니, 즉석에서 자신의 귀에 끼고 있던 보청기를 뽑아주면서 한번 끼어보라고 하셨다. 받아서 끼어보니 확실히 잘 들린다. DJ는 그 자리에서 보청기회사로 전화를 해서 나를 소개해주셨다. 2005년 어느 봄날이었다. 그 무렵에 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자주 회의를 주재하거나 행사에 나가서 발언해야 할 기회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보청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참이었다.

과연, DJ가 소개해주신 보청기회사에 가서 보청기를 맞추어 귀에 꽂았더니 아주 효과가 있었다.

그 후 DJ의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때, 나는 그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그 행사에는 독일의 바이즈체커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념식이나 만찬 때에는 헤드테이블에 동석을 했다. 식순에 따라 행사가 진행 중인데, DJ의 비서관이 내게로 오더니, 혹시 보청기 배터리를 갖고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비상용 보청기 배터리를 뽑아서 내주었다. 테이블 맞은 편에 앉은 DJ께서 의미 있는 (?) 눈짓을 보내왔다.

그 뒤 또 한번 똑같은 위급(?)에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반드시 보청기 배터리를 넣고 다녔다. 같은 회사의 동종의 보청기라서 그런 긴급구조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분을 위해서 보청기의 비상용 배터리를 갖고 다닐 필요는 없게 되었다.

한승헌 변호사는

▲1934년 9월29일 전북 진안 출생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전북대 석좌교수

DJ 묘비·추모비 제막식에

여야 정치권 총출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0일을 맞은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는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묘비와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49재를 대신해 열린 이날 제막식에는 부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들과 전직 비서진, 국민의 정부 각료 및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 송영길·안희정·김진표 최고위원, 무소속 정동영 의원 외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청와대 맹형규 정무특보,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박형준 정무수석 등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 김 전 대통령 묘소 옆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권양숙 여사가 보낸 조화도 배치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희호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출간된 '옥중서신 1, 2권'을 묘소 앞에 헌정했으며, 한승헌 변호사는 고인을 기리며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로 아버지와 작별한 지 50일인데 기독교에서는 50이라는 숫자는 자유, 해방 등 많은 의미를 갖는다"며 "아버지는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에서 해방돼 하느님 곁에서 저희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유가족들은 아버지와 뜻을 같이한 모든 분들과 그 분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묘역이 우리 모두와 후손들이 그 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으로 남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미 회담 결과 보고 6자회담"

김정일 '조건부 복귀' 표명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평양회담에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북핵 6자회담 복귀 용의를 밝힌 것은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여는 중대 발표라고 할 수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날 미국과 협상 진행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단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핵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했다는 분석이다.

"6자회담 재개 절대 불가"를 외쳐오던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힘으로써 작년 12월이후 거의 일년간 중단돼온 6자회담은 재개에 유리한 진전을 가져왔지만 아직 재개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북한이 강력 희망해왔으나 미국 측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았던 북-미 양자회담이 김 위원장의 '선언'을 계기로 추진력을 얻게 됐다.

한국과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미 양자대화에 무게를 뒀다며 북한의 진의 파악을 강조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핵 협상이 지금까지 10년가량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핵 협상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않다.

북한이 결국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북-미대화를 성공시키고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김위원장이 이를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표한 것은 중국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미국와의 협상과 국제사회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6자회담 성공을 외교의 중요 성과로 내걸고 있는 중국에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취한 제재결의는 북한에 전방위에서 압박을 가해왔고 북한은 이 제재를 해제하는 데도 중국의 힘에 크게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연합뉴스